

좋은 공공건축 만들기(1)

영주시의 시도를 중심으로

박선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좋은 공공건축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편리하고 오래 가는,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건축이다. 공공건축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기획이 이루어져 공공건축 조성·유지·관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조성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디자인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자의 업무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또한 조성 전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엇보다 좋은 공공건축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2014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비 2억 3천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의무화되었다(2015년 1월 1일부터 2억 1천만 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획단계에 전문가의 공식적 도움 없이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 심지어 발주업무를 처음 해보는 담당자도 적지 않다. 게다가 좋은 공공건축이란 무엇이며, 좋은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 기획단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은 구체적인 업무지침이나 좋은 사례집도 매우 부족한 데다 홍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좋은 공공건축의 담론을 지속하고 공공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발주기관의 이해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좋은 공공건축 만들기」 단행본을 기획하였다. 첫 단행본은 국내 사례로, 좋은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름의 성과를 거둔 영주시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좋은 공공건축 만들기(1)
차주영·조준배·박선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둔
영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좋은 공공건축’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간다.

공공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발주기관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공공건축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위한 책

서론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현실’에 대해 서술하였다. 공공건축의 기능과 가치에 대해 고찰해 보고 그간 행정관리 편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문제들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좋은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요건에 대해 서술하였다.

본론인 ‘좋은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영주시의 시도’에서는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한 영주시의 도전과 실험, 공공건축 발주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성과들을 소개하였다. 공공건축·공공공간 통합마스터플랜, 공공건축 전담조직, 협력적 의사결정체계, 사업 특성에 맞는 발주방식의 네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영주시의 공공건축·공공공간 통합마스터플랜’에서는 영주시의 도시특성, 통합마스터플랜의 역할과 통합마스터플랜의 수립 단계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서술하였다. 또한 공공건축·공공공간 통합마스터플랜에 따라 도심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발굴하여 공공자원을 통합적·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자산가치를 회복한 다양한 사업추진 성과를 정리하였다.

‘영주시의 공공건축 전담조직인 디자인관리단’에서는 영주시 디자인관리단 조직의 배경을 비롯해 목적과 운영체계를 소개한다. 또한 경관 및 디자인 조례에 명시된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장의 실제 업무수행 내용과 역할, 5년간의 제도 운영 성과 사례를 담았다.

‘협력적 디자인관리가 이루어낸 영주 참사랑 주민복지센터’에서는 향교골 주민복지센터 조성사업 기획단계의 디자인관리단, 공공건축가, 주민, 운영 관련 단체 간 협력적 의사결정과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인접한 지역의 기존 추진사업과의 연계 추진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관련 주체 간 협력적 의사결정과 장소중심의 유사사업 연계 추진을 통해 좋은 공공건축을 조성하고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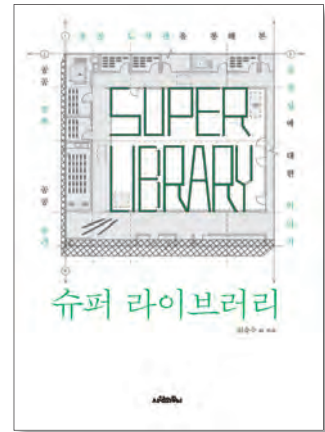
‘사업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발주방식의 적용’에서는 발주과정에서의 도전과 실험을 소개한다. 공공건축의 기획단계에 발주방식별 대안검토와 사업특성에 맞는 적절한 발주방식을 결정하는 일은 공공건축의 품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설계공모를 통해 진행한 ‘영주아트파크사업’과 최저가입찰방식 적용 실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풍기읍사무소 신축사업’의 발주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성과들을 소개하였다.

결론 부분인 ‘합리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과제’에서는 2013년 6월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내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14년 6월 23일 법정센터로 지정되어 시행 중인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법정업무와 연구업무를 소개하며 향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좋은 공공건축 만들기」의 주요 독자는 공공기관의 공공건축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다. 본 단행본이 공공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발주기관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공공건축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슈퍼 라이브러리 공공을 그리다 공존의 방식

신승수 디자인그룹오즈
 건축사사무소 소장



슈퍼 라이브러리
신승수·임상진·최재원
사람의 무늬, 2014

지금, 우리 도시가 꿈꾸는 공공건축

이 책에서 말하는 슈퍼(Super)의 의미는 슈퍼마켓처럼 일상적인 것,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것, 특별하고 좋은 것,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말한다. ‘공공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마치 슈퍼마켓 드나들듯 빈번하게 드나들며 정보와 지식을 찾고, 이곳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유롭게 뛰어놀 수는 없을까?’ 「슈퍼 라이브러리」는 바로 이러한 개인적 질문과 그림에서 출발해 현대 지식사회에서 도서관이 갖는 가치와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고 공간 디자인의 원리와 제도적·정책적 지원 전략, 그리고 개별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디자인 경영이 갖는 가치와 의의를 탐구한다.

특히 유럽 선진국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수준 높은 공공공간을 기획·건립·운영하고 있는 영국·네덜란드의 도서관 정책과 대표적 프로젝트의 가치와 의의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총체적 경험을 강화하고 교환하는 공공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별로 특화되거나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와 사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도서관을 비롯한 현대의 공공공간이 인간의 공동체를 묶고 일상에서 장소의 감각을 발견하는 통합적 도시공간으로 진화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어떤 방식으로 개별 건축물을 발주하고 유지·관리 하면 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 도서관, 좋은 공공건축과 공공공간, 그리고 좋은 도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지표가 아닌 성능 중심의



공공을 그리다
신승수
spacetime, 2012

책은 고유한 일상의
조건들을 빚어
어떻게 ‘더불어
사는 삶의 집’을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유’에서 ‘거주’로의,
‘우리끼리’에서
‘우리 함께’로의
방향을 찾아 나간다.

정책,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기획, 협업적 디자인 프로세스의 구축, 통합적 공간 운영과 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서 ‘성공적인 공공공간’에 요구되는 ‘유연한 사용’과 ‘다양한 문화적 가치’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기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바람이 바로 이 책의 제목 ‘슈퍼 라이브러리’의 참뜻이며, 개별적 사용자의 경험이 사회와 만나서 화해하고 연계되고 통합됨으로써 다수가 공감하는 사용가치로 구현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슈퍼 라이브러리’가 그리는 우리 시대의 공공건축, 공공공간,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그림이다.

공공 디자인,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접속사

이러한 그림의 뿌리가 되는 책이 2012년에 출판된 「공공을 그리다」이다. 「슈퍼 라이브러리」가 공공공간에 대한 사용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공공을 그리다」는 공공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면서 느끼고 깨달은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이 책은 당시에 전국의 지자체를 광풍처럼 휩쓸었던 무의식적인 공공 디자인 열풍을 비판하면서, 공공 디자인이라면 으레 상징성·가능성·심미성이라는 키워드를 열거해 더하는 작업이라는 안일한 인식에 질문을 던진다. 끊임없는 질문이야말로 공공성에 다가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면서 추상적이고 대립적인 공공성 개념을 대신해서 구체적이고 상호적인 공공성 개념을 유도해 나간다.

「공공을 그리다」는 공공성이란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단지 주어진 ‘형용사’로서의 ‘공공 디자인(A public design)’을 넘어서 ‘공공을 디자인 한다(to design public)’는 동적인 작업, 즉 ‘동사’로서의 공공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공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전제로 추상적인 공간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의 삶과 행위들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집합의 공간을 그리는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공공 디자인이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와 경계를 조직하는 동적인 과정이며, ‘공’ 또한 ‘사’를 떠나서 홀로 존재하는 대립항이 아니라 사유 공간을 집합의 공간으로 연결하는 일종의 접속사로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연결 동작과 행위들이 만드는 총체적 경험을 저자는 감성과 이성 및 상상력을 아우르는 뜻을 가진 우리말 ‘그리다’에서 찾는다. ‘그리고’로 연결된 각각의 동작들을 ‘그림’으로써, 개별자들이 모여서 집합을 만드는 출판의 연출이 바로 필자가 생각하는 공공(公共)의 이미지다.

이런 생각들을 연결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 책은 공공 디자인을 ‘디자인하기’와 ‘공공하기’라는 동사가 갖는 여러 켤들의 동작들로 설명한다. 아울러 고정되거나 정체된 개념에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행위로서의 디자인을 촉구하고 있다.

‘사적이지 않은 집(un-private house)’을 짓다

그 디자인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던 몇몇 성과들을 묶어서 만든 책이 바로 「공존의 방식」이다. 이 책은 「공공을 그리다」와 「슈퍼 라이브러리」를 잇는 접속사로서의 ‘그림’이 갖는 구체적 모습을 담았다. 2012년 12월에 열렸던 ‘한일 현대건축 교류 전’의 전시 작품을 엮어서 만든 이 책은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공존의 방식을 ‘사적이지 않은(un-private)’ 무엇에서부터 찾고자 한다. 사적인 동시에 공적인 영역이며 개별적인 동시에 집합적인 영역인 ‘경계’와 ‘전이’ 공간을 다룬 프로젝트들이 디자인 전략별로 유형화되어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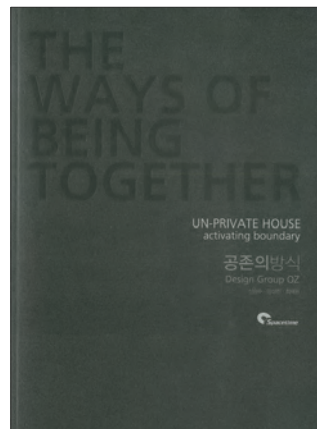
각각의 프로젝트들은 ‘생각-그림(ideogram)’과 함께 고유한 일상의 조건들을 빚어 어떻게 ‘더불어 사는 삶의 집’을 그려갈 수 있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집의 그림을 통해서 ‘소유’에서 ‘거주’로의, ‘우리끼리’에서 ‘우리 함께’로의 방향을 찾는다.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공공의 그림’을 깊이 있는 경계 공간 만들기의 다양한 모습에서 찾고 있는 각각의 프로젝트들은 저자가 ‘장소를 점유하는 가장 지속적인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건축하기의 잠재적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이 책의 부제인 ‘사적이지 않은 집(un-private house)’이란 바로 이러한 여지(room)를 품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지속적인 여지의 집합인 건축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별적인 관심과 활동을 촉발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디자인, 수동적인 경험 대신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비우는 디자인, 그리고 개별적 공간을 연계해 도시로 열여가는 디자인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꿈꾸는 공존, 이를 향한 과정

「공공을 그리다」에서 출발하여 「공존의 방식」을 거쳐서 「슈퍼 라이브러리」에 이르는 과정은 뿌리와 줄기를 거쳐서 잎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공존의 방식」에 삽입된 말풍선 속에 담긴 우리의 작은 이야기와 공간들이 모여서 커다란 도시의 비전과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듯, 우리가 꿈꾸는 공존의 방식들도 우리 주변의 개별적인 사건들의 새로운 집합방식으로부터 자라나고 가꾸어진다는 것이 이 책들이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다.

개별 사용자의 경험이
사회와 만나고
통합됨으로써
다수가 공감하는
사용가치로
구현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슈퍼 라이브러리’가
꿈꾸고 그리는
우리 시대의 ‘공공성’이다



공존의 방식
신승수·임상진·최재원
spacetime, 2013